

## 교육수준, 직업과 이혼상태율\*

### Education, Occupation and the Proportion of the Divorced

인하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吳 善 周

Dept. of Home Management

Inha University

Associate Prof. : Sun Joo, Oh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며 특히 여러변수와 이혼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혼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통계청에서 집계한 자료중에 이혼과 수입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 직업과 이혼과의 관계만을 살펴보았다.

교육수준별, 직업별로 이혼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별 이혼상태율을 보면(1980, 1990년의 자료를 분석) 남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상태의 비율이 낮아진다. 여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점 이혼상태의 비율이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는 곡선형의 관계를 보인다. 남녀모두 모든 교육수준에서 중퇴자들이 졸업자들보다 높은 이혼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으로 통제한 후에도 이러한 경향에는 별 변함이 없다.

직업별 이혼상태율을 비교하면(1970, 1980, 1990년의 자료를 분석) 남성들의 경우 직업군의 지위가 높을수록 이혼상태율이 낮아진다. 여성들의 경우 직업적지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가 불규칙하게 이혼비율이 분포되어 있어 일반적 경향을 찾기가 어려우나 가장 낮은 이혼율을 보인 직업과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인 직업은 세시기에 일관성있게 나타났다. 농/축/임업/수산업/수렵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혼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현저하게 이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으로 통제한 후에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 I. 서 론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의 이혼은 매우 억제되어

\*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 '93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있었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부계제 사회에서의 혼인이란 남편과 부인 개인의 결합이라기 보다는 남자의 집안에 여성이 혼입하여 가계를 이어주기 위하여 자식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질에 관계없이 혼인생활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혼이 허용되던 사유로 철거지악이 있었으나 나라에서는 삼불거를 적용하여 가능하면 이혼을 제한하고자 하였다(이광규, 1981).

그러나 서구문물의 유입에 따라 새로운 가치관이 만연되면서 혼인은 개인당사자간의 결합이며 부부관계의 질이 혼인생활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때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이혼율이 1970년에는 0.36이던 것이 1980년에는 0.62, 1990년에는 1.00으로 급증하였다. 이렇게 급증하는 가족해체현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혼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따라서 이혼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이혼에 대해 다른 내용 또한 제한되어 있어서 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이혼율의 증감을 살펴보거나 이혼사유별 비율을 비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변수와 이혼율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는 우리나라의 이혼에 대한 통계자료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변수와 이혼율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혼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변수중에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혼율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로써 교육, 직업, 수입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통계청에서 집계한 자료중에 이혼과 수입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 직업만을 포함시켜 이혼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고 이혼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혼현상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혼

### 1. 교육수준과 이혼

전체적으로 볼때 교육수준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서 이혼과 역방향의 관계가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하는 경향이 낮아진다.

Udry(1966)는 1960년의 미국 센서스자료를 이용해 남녀 모두에게 교육수준과 이혼율의 역방향의 관계를 발견했는데 대학원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은 예외였다. Goode(1966)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민학교 교육이하의 교육수준의 사람은 고졸이나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이혼경향이 훨씬 높았다. 대졸자의 이혼율이 제일 낮았다.

Carter와 Glick(1976)는 교육수준과 이혼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사이의 관계는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백인 남성에게 있어서는 이혼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백인여성의 경우 이혼상태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교육수준부터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까지 불규칙하게 증가하다가 대졸자에게서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다시 대학원 교육이상의 사람들에게서는 갑자기 증가하여 제일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부인의 교육수준은 이혼가능성에 결혼초기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Morgan과 Rindfuss(1985)의 연구에 따르면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가능성이 낮으나 그 효과는 결혼초기에 더 강하게(통계적으로 유의하게)나타났다.

Houseknecht와 Spanier(1980)는 교육수준과 이혼의 역관계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에게서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에게 있어서도 약간의 예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교육수준이 직업이나 수입을 통하여 이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직업이나 수입을 통제된 후 교육수준과 이혼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본래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Houseknecht와 Spanier는 교육수준은 직업과 수입을 통한 영향이외에 고유의 영향을 사람들의 이혼경향에 미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Martin과 Bumpass(1989)의 연구와 Chan과 Heaton(1989)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은 이혼과 역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교육수준이 아니라 졸업을 하였느냐 중퇴하였느냐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학자들도 있다. Bernard(1966)는 모든 직업군에서, 모든 경제 수준에서 학교중퇴자들이 졸업자들보다 높은

이혼율을 보인다고 하면서 학교중퇴자는 실제로 결혼중퇴자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그녀는 학교중퇴자들의 사회적배경과 심리학적 경향이 결혼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 2. 직업과 이혼

지위가 높은 직업군일수록 이혼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보고되었다. Kephart(1952)는 직업적지위와 이혼율의 역방향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이혼경향성은 노동-서비스직, 반숙련직, 숙련직, 사무직, 전문-경영직의 순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Kephart는 배우, 음악가, 사업상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 의사들이 이혼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Dublin(1965)도 또한 불규칙적인 근무시간, 야간근무, 이성과의 잦은 접촉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이혼율이 높다고 하였다.

Rosow와 Rose(1972)는 의사들을 연구하여 두가지 다른 이론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직업적긴장 이론에 따르면 의사는 이혼율이 높을 것이나, 다른한편 계층화 이론에 따르면 의사는 지위가 높은 직업이므로 이혼율이 낮을 것이다. Rosow와 Rose는 그들의 연구에서 의사들이 매우 낮은 이혼율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계층화 이론을 지지하였다.

Carter와 Glick(1976)은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직업적지위와 이혼과의 관계가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남성들의 경우 서비스직종사자, 노동자중에서 이혼자의 비율이 높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경영인, 서비스직종사자, 숙련직, 사무직중에서 높은 이혼 비율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낮은 이혼비율을 보인 남성들은 농업, 전문직, 경영직, 판매직이었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농업, 전문직, 판매직이었다.

## 3. 수입과 이혼

교육수준이나 직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입과 이혼의 관계도 역방향으로 보고되었다. Goode(1956)는 남성의 수입과 이혼경향성이 역방향의 관계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남편 수입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이 수입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Ross와 Sawhill(1975)은 남편고용의 불안정성이 이혼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

하였다. Cherlin(1979)도 역시 남편고용의 불안정성이 이혼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이것을 결혼한 남성에게 부과된 가족부양자의 역할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부인의 수입도 이혼과 관련이 있다. Ross와 Sawhill(1975)은 수입이 높은 부인이 이혼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독립효과"라 불렀다. 남편의 수입과 독립된 수입이 부인에게 있는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러한 부인은 행복하지 못한 결혼을 종결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Becker(1973)는 부인의 수입 대 남편의 수입의 비가 낮으면 여성이 가정에 남아있는 것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결혼안정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Hannan과 Tuma(1977)의 연구결과도 Becker의 이론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Cherlin(1979)는 부인의 수입이 두 가지 방향으로 결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부인의 수입은 가족의 총 수입을 증가시키는데, 수입이 많은 가족은 이혼하는 경향이 낮으므로, 부인의 수입이 이혼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인의 직업은 남편의 수입과 독립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만약 결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부인의 독립된 수입은 이혼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미국의 연구들은 교육, 직업, 수입 등의 변수와 이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찾아보기 보다는 좀더 이론적으로 깊이를 더하고 상반되는 이론을 비교 검증하기 위하여 정교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Greenstein(1990)은 여성의 직업 참여를 다섯가지로 다르게 조작적 정의를 내려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여성의 직업참여의 어떤 측면이 이혼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부인의 수입, 일주일의 근무시간, 혼전직업경험, 결혼후 직업경험, 가족수입 중 부인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이 다섯가지 변수 중에서 이혼과 관련이 있게 나타난 변수는 혼전직업경험, 부인의 수입, 주당 근무시간이다. 혼전에 일한 경험이 적은 부인들이 이혼 경향이 적었다. 부인이 수입이 적을수록 이혼가능성이 높았다. 주당 근무시간이 길때 이혼위험성이 높았다. 또한, 부인의 수입이 "독립효과"를 나타내어 이혼율을 높이게 되는지

아니면 가족수입을 높임으로써 이혼율을 낮추게 되는지를 조사해 보았을때 Greenstein의 연구는 후자를 지지해 주었다. 즉, 부인의 직업이 전문직, 경영직, 기술직일 경우 이혼 경향이 낮으며, 수입이 높은 부인일수록 이혼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소개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혼에 대한 연구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 몇몇 종단적 연구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혼에 대한 연구는 센서스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즉,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오는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결혼상태(미혼, 결혼, 이혼)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에 대한 측정이 방법론상 문제가 크다(Hannan과 Tuma, 1977). 이혼을 했으나 이미 재혼한 사람은 이혼상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이혼에 대한 측정이 될 수 없다. Norton과 Glick(1979)은 백인남녀가 흑인남녀보다 재혼을 훨씬 빨리한다는 점과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이혼한 상태로 더 오래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어떤 한 시점에서 자신을 이혼상태에 있다고 보고한 사람은 실제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횡단적 자료의 또하나의 문제는 인과관계의 방향 문제이다(Moles, 1976). 예를들면, 수입 또는 직업과 이혼의 관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방향이 어느쪽이나 하는 것을 가리기 어렵게 된다. 이혼은 남성의 직업적 성취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uncan, Featherman과 Duncan, 1972). 따라서 수입도 자연히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관계로, 횡단적 자료에서 나타난 수입과 결혼상태와의 관계는 수입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과, 이혼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Hannan과 Tuma, 1977). 이러한 횡단적 자료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가려내기가 어렵게 된다(Cherlin, 1979).

#### 4. 우리나라의 이혼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의 이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의 연구로 이혼에 대한 태도 연구(박찬미, 서병숙, 1987), 이혼의 사회적 배경고찰(김정옥, 박경규, 1993)이나 이혼여성의 문제와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한경혜, 1993)등이 있으나 이혼

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혼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김혜선(1982), 이태영(1987), 정민자(1987)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혜선(1982)은 한·일간의 이혼 경향을 비교연구하면서 이혼부부의 직업분포, 교육정도 분포를 분석 제시하였다. 이혼부부의 직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원에, 일본의 경우 사무관계 판매·서비스 관계직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자료는 총인구의 직업분포와 비교하여 이혼부부의 경우 사무관계 판매·서비스관계 직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어떤 직업이 이혼경향이 높은지 알 수 있으나 한국자료는 이혼부부의 직업분포만 제시되고 총인구의 직업분포와 비교하여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 이혼경향이 높은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혼부부의 교육정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졸 고졸 국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이혼한 부부의 교육수준이 국졸이 40%이상으로 일반부부와 비교하였을때 교육수준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일본의 자료는 일반부부와 비교하였으므로 어떤 교육수준이 이혼경향이 높은지 파악할 수 있으나 한국자료는 일반부부와 비교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수준이 이혼경향이 높은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

이태영(1987)의 이혼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이혼당사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는데 이중에 학력별 분포와 직업별 분포가 포함되어 있다.

이혼당사자의 학력분포를 보면 고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졸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일반층의 학력분포와 비교되지 않았으므로 어느 학력수준의 사람들이 이혼경향이 높은지는 알 수가 없다.

이혼당사자의 직업분포를 보면 남편의 경우 무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상업, 회사원, 농어업의 순으로 나타나있다. 부인의 경우 무직이 가장 많고 직업이 있는 경우 상업, 농업, 종업원의 순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전인구의 직업분포와 비교되지 않았으므로 어느 직업이 이혼경향이 높은지는 알 수가 없다.

정민자(1987)의 연구에서도 이혼사건에 대한 직

업별 분석을 하여 제시하였다. 이혼 청구인의 경우 남성은 상업, 노무자, 농어업, 무직, 자유업, 종업원, 공무원, 군인, 교육자의 순이며 여성은 무직, 상업, 농어업, 노무자, 종업원, 자유업, 회사원, 공무원, 군인의 순이다.

피청구인의 경우 남성은 무직, 노무자, 상업, 회사원, 농어업, 자유업, 종업원, 공무원, 군인, 교육자의 순이며 여성은 무직, 농어업, 상업, 종업원, 자유업, 노무자, 회사원, 공무원, 교육자, 군인의 순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일반인의 직업분포와 비교한 것이 아니므로 어느 직업이 이혼경향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혼에 대한 연구들도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놓았을 뿐 일반인의 직업, 학력분포와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직업이나 어떤 학력이 이혼경향이 높은지 낮은지를 밝혀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별, 교육수준별 이혼율을 비교하여 어느 직업이나 어떤 학력이 이혼경향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분석함으로써 직업, 교육과 이혼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살펴보고자 하였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인구 주택총조사에서는 현재의 혼인상태를 조사하여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통계청, 1992 : 7).

- (1) 유배우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
- (2) 사별 :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하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 (3) 이혼 : 배우자가 서로 헤어져서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 (4) 미혼 : 혼인한 사실이 없는 사람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 중 수입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정도과 직업만을 사용하였다. 교육정도는 유치원을 제외하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정규교육기관 즉,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 등에서 수학한 정도를 말한다(통계청, 1992).

직업은 각 개인이 활동한 주된 일의 종류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분류된 것을 사용하였다(통계청, 1992).

- 0/1.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2.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3.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
4. 판매종사자
5. 서비스직 종사자
6.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업 종사자
- 7/8/9.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운수장비운전자 및 단순노무자

가장 최근에 조사된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를 기준으로 시대적 추이를 알기위해 1980, 1970년대 등과 같이 과거의 자료를 함께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의 제한때문에 직업과 혼인상태에 관한 자료는 1990, 1980, 1970년대의 자료를 분석하고 교육수준과 혼인상태에 관한 자료는 1990, 1980년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직업과 혼인상태에 관한 자료는 보고서에 발표된 자료를 이용하고(경제기획원, 1973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2 ; 통계청, 1992) 교육수준과 혼인상태에 관한 자료는 보고서에 발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통계청에 의뢰하여 1980년, 1990년의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표를 가지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혼율의 변화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었으므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교육과 이혼, 직업과 이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는 혼인상태가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으로 되어 있고 15세 이상의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혼비율을 알아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 '미혼'을 제외하고 유배우, 사별, 이혼자 중에서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즉, 혼인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혼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연령, 또는 결혼경과 년수에 따라 이혼상태율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변수로 통제를 해야 위와 같은 분석들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두 변수중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연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연령별로 통제된 직업별 이혼상태율과

교육수준별 이혼상태율도 발표된 자료에서는 계산할 수 없어서 통계청에 의뢰하여 1980년, 1990년의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령으로 통제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연령 집단을 10세 간격으로 묶어서 사용하였다(15~24, 25~34, 35~44, 45~54, 55~64세 등). 5세간격으로 하였을때는 이혼건수가 너무 적어져 10세 간격으로 하는 것이 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횡단적자료로서 앞에서 언급한 미국연구와 마찬가지로 횡단적자료가 가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 재혼한 사람은 이혼상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이혼비율이 아니다. 또한 인과관계의 방향을 정하기가 어렵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이혼하는 경향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달라진 것인지 가리기 어렵고 이혼할 당시의 직업이나 교육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제한되어 있고, 한번에 여러 변수로 통제하면서 분석할 수가 없으므로 한 변수와의 순수한 관계성을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통계청에서 혼인, 이혼신고서를 집계하여 인구동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는 하나(통계청, 1993) 이 경우에도 혼인한 사람들을 추적하여 이혼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 시점에서 혼인하는 사람, 이혼하는 사람들을 집계한 것이므로 종단적자료는 될 수 없고 또한 혼인, 이혼신고가 그 당시에 되지 않고 지연되기 때문에 이 자료 또한 정확한 이혼율을 계산하는데 문제가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혼율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횡단적 자료로서의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이혼율의 변화

1970년~1990년의 이혼건수와 이혼율의 변화를 살펴보면(표 1) 우선 이혼건수는 1970년에 비해 1980년도에 2배 정도되며 1990년에는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혼건수를 인구 1000명당의 수치로 바꾸어 이혼율을 살펴보면 1970년도에는 0.36이었으나 1980년도에는 0.62로 증가하며 1990년에는 1.00으로 거의 3배에 가까운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혼율의 급증은 현대 우리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해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이혼에 대한 억제정책(이광규, 1981)결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던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무너지고 서구의 가치관의 유입에 따라 원치않는 결혼을 해체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교육수준별 이혼상태율

1980년의 교육수준별 이혼상태의 비율을 비교해

표 1. 1970-1990년의 이혼건수 및 이혼율

| 년 도  | 이혼건수* | 이혼율** |
|------|-------|-------|
| 1970 | 11615 | 0.36  |
| 1971 | 11361 | 0.35  |
| 1972 | 12188 | 0.36  |
| 1973 | 12719 | 0.37  |
| 1974 | 14073 | 0.41  |
| 1975 | 16453 | 0.47  |
| 1976 | 17055 | 0.48  |
| 1977 | 20146 | 0.55  |
| 1978 | 19152 | 0.52  |
| 1979 | 17178 | 0.46  |
| 1980 | 23662 | 0.62  |
| 1981 | 24543 | 0.63  |
| 1982 | 26898 | 0.68  |
| 1983 | 29609 | 0.74  |
| 1984 | 36127 | 0.89  |
| 1985 | 38609 | 0.95  |
| 1986 | 39212 | 0.95  |
| 1987 | 41500 | 1.00  |
| 1988 | 40666 | 0.97  |
| 1989 | 41181 | 0.97  |
| 1990 | 42898 | 1.00  |

\*인구동태 신고현황(1980-1985), 인구동태 통계연보(1989-1994)에 발표된 수치를 사용하였음.

이혼의 지연신고로 인하여 보다 정확한 수치를 얻기 위하여 10년후의 수치를 사용하였으나 자료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이표에서의 이혼율은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수)을 말함.

각년도의 인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한 연도별 추계인구자료를 사용하였음.

표 2. 교육수준별 이혼상태율(%)

| 년 도   |      | 1980 |     | 1990 |     |
|-------|------|------|-----|------|-----|
| 교육    | 성별   | 남    | 여   | 남    | 여   |
| 불 취 학 |      | 0.8  | 0.6 | 1.2  | 0.6 |
| 국     | 졸    | 0.7  | 1.0 | 1.6  | 1.2 |
| 중     | 졸    | 0.7  | 1.1 | 1.5  | 1.6 |
| 고     | 졸    | 0.4  | 1.5 | 0.9  | 1.3 |
| 대     | 졸 이상 | 0.4  | 0.8 | 0.5  | 0.9 |
| 국     | 퇴    | 1.6  | 1.5 | 2.6  | 1.7 |
| 중     | 퇴    | 0.8  | 2.4 | 2.8  | 3.7 |
| 고     | 퇴    | 1.0  | 3.6 | 2.5  | 4.4 |
| 대     | 퇴    | 1.0  | 2.5 | 1.4  | 2.7 |

보면(표 2) 우선 남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상태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퇴자들의 경우는 졸업자들보다 높은 이혼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자의 경우 남자와는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이혼상태의 비율을 보이다가 대졸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이혼상태의 비율이 낮아진다. 중퇴자들이 졸업자들보다 높은 이혼상태비율을 보이는 것은 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1990년의 교육수준별 이혼상태의 비율을 비교해보면(표 1) 남자의 경우 1980년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이혼상태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불취학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국졸, 중졸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퇴자들이 졸업자들보다 높은 이혼상태의 비율을 보이는 것은 1980년과 마찬가지로이다.

여자의 경우 불취학, 국졸, 중졸로 되면서 점점 이혼상태의 비율이 높아지다가 고졸, 대졸로 가면서 점점 낮아지는 곡선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중퇴자들이 졸업자들보다 높은 이혼상태의 비율을 보이는 것은 1980년과 마찬가지로이다.

남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이혼상태의 비율을 보이는 것은 미국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Goode, 1966; Carter와 Glick, 1976; Chan과 Heaton, 1989 등). 1990년대에 불취학의 경우에 국졸, 중졸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이표에서는 연령으로 통제하지 않았으나 불취학의 경우 거의 연령이 높은 층으로 생각되므로 그들의 가치관으로는 이혼이 허

용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여성의 경우도 Carter와 Glick(197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 비율이 증가하다가 대졸이상에서 낮아지는(1990년대에는 고졸부터 낮아지고 있다)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자료에서는 대졸과 대학원 이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이혼비율을 알 수가 없어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가장 높은 이혼비율을 보인다는 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Bernard가 말한 학교 졸업자들과 중퇴자들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1980년대, 1990년대에 남자, 여자의 경우에 모두 중퇴자들의 이혼비율이 졸업자들의 이혼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Bernard(1966)가 언급했듯이 중퇴자들의 사회적 배경과 심리학적 경향이 이혼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본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교육은 이혼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고 가정 할 수 있으므로(물론 이혼후 다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으나 소수라고 보고) 교육수준이 이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남성과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이혼비율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를 살펴보자. 남성은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이혼비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여성은 오히려 점점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수입이나 직업으로 통제된 후 분석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수준이 수입과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때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들은 수입이나 직업적 지위도 높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혼을 더 적게 할수도 있고 또, 이혼 후 재혼의 가능성도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의 경우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남녀의 전통적 역할을 벗어나는 경향이 더 많거나 혹은 이혼후에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더 많기 때문에 이혼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추측할 수 있으나 대졸의 경우에는 미국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왜 이혼비율이 다시 낮아지는 지는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후에 논의될 연령집단별로 본 교육수준별 이혼상태율에서 연령으로 통제된 후 분석해 보기로 하자.

3. 직업별 이혼상태율

표 3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행정/관리직, 사무직, 전문/기술직이 1970, 1980, 1990 모두 낮은 이혼비율을 보이는 직업으로 나타나있다. 판매직이 3시기에 계속 4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혼상태비율이 높은 직종은 농/축/임업/수산업/수렵업, 생산/운수/단순노무, 서비스직이다.

여성의 경우 농/축/임업, 전문/기술직, 판매직이 이혼상태비율이 낮은 직업으로 나타나있고 생산/운수/단순노무직, 사무직, 행정관리, 서비스직이 이혼상태비율이 높은 직업으로 나타나있다. 1970년대에는 예외적으로 생산/운수/단순노무직이 이혼상태비율이 낮은 직종으로(2위)나타나 있으나 이것도 3.7%로 3, 4위인 전문/기술직, 판매직의 3.8%와 별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직은 최고의 이혼상태 비율을 보이며 다른직업과의 이혼상태비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

순위대로 정리한 표 4-1을 살펴보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직업군의 지위가 높을수록 이혼율이 낮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Kephart, 1952; Carter와 Glick, 1976등). 대체로 세시기에 모두 사무직,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판매직은 이혼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고 농/축/임, 서비스직, 생산/운수/단순노무직은 이혼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직업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이혼을 덜 한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지을수는 없다. 직업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이혼을 한 후에도 직업적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재혼을 더 쉽게 하기 때문에 이혼상태의 비율이 낮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경우 표 4-2에는 남성과는 달리 직업적 지위가 낮은 농/축/임이 세 시기에 모두 이혼비율이 가장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비경제 활동인구보다도 낮은 이혼비율을 보이며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이혼비율의 차이가 현저하다. 이들은 직업의 종류로 보아 자신의 생활을 운명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치관을 가졌거나 아니면 이혼한 후에는 생활기반을 떠나 다른방법으로 생계를 찾기가 곤란한 여성들이 아닐까 생각된다. 비경제 활동인구(1980년대만 계산됨)보다

표 3. 직업별 이혼상태율(%)

| 년 도            |    | 1970 |      | 1980 |     | 1990 |     |
|----------------|----|------|------|------|-----|------|-----|
| 직업             | 성별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전문/기술직         |    | 0.5  | 3.8  | 0.3  | 2.3 | 0.5  | 2.1 |
| 행정/관리직         |    | 0.2  | 5.7  | 0.3  | 5.6 | 0.6  | 3.8 |
| 사무직            |    | 0.3  | 6.9  | 0.3  | 3.3 | 0.5  | 2.6 |
| 판매직            |    | 0.6  | 3.8  | 0.5  | 2.6 | 0.9  | 2.5 |
| 서비스직           |    | 0.8  | 14.2 | 0.5  | 7.9 | 1.1  | 7.1 |
| 농/축/임업/수산업/수렵업 |    | 0.7  | 0.6  | 0.7  | 0.3 | 0.9  | 0.3 |
| 생산/운수/단순노무직    |    | 0.7  | 3.7  | 0.6  | 2.8 | 1.4  | 2.9 |

표 4-1. 직업별 이혼상태율 비교 순위(남자)

| 순위 | 1970년          |       | 1980년          |       | 1990년          |       |
|----|----------------|-------|----------------|-------|----------------|-------|
| 1  | 행정/관리직         | (0.2) | 행정/관리직         | (0.3) | 사무직            | (0.5) |
| 2  | 사무직            | (0.3) | 사무직            | (0.3) | 전문/기술직         | (0.5) |
| 3  | 전문/기술직         | (0.5) | 전문/기술직         | (0.3) | 행정/관리직         | (0.6) |
| 4  | 판매직            | (0.6) | 판매직            | (0.5) | 판매직            | (0.9) |
| 5  | 농/축/임업/수산업/수렵업 | (0.7) | 서비스직           | (0.5) | 농/축/임업/수산업/수렵업 | (0.9) |
| 6  | 생산/운수/단순노무직    | (0.7) | 생산/운수/단순노무직    | (0.6) | 서비스직           | (1.1) |
| 7  | 서비스직           | (0.8) | 농/축/임업/수산업/수렵업 | (0.7) | 생산/운수/단순노무직    | (1.4) |
|    |                |       | *실업자           | (1.4) |                |       |
|    |                |       | 비경제활동인구        | (1.0) |                |       |



표 4-2. 직업별 이혼상태를 비교 순위(여자)

| 순위 | 1970년                | 1980년                | 1990년                |
|----|----------------------|----------------------|----------------------|
| 1  | 농/축/임업/수산업/수렵업 (0.6) | 농/축/임업/수산업/수렵업 (0.3) | 농/축/임업/수산업/수렵업 (0.3) |
| 2  | 생산/운수/단순노무직 (3.7)    | 전문/기술직 (2.3)         | 전문/기술직 (2.1)         |
| 3  | 전문/기술직 (3.8)         | 판매직 (2.6)            | 판매직 (2.5)            |
| 4  | 판매직 (3.8)            | 생산/운수/단순노무직 (2.8)    | 사무직 (2.6)            |
| 5  | 행정/관리직 (5.7)         | 사무직 (3.3)            | 생산/운수/단순노무직 (2.9)    |
| 6  | 사무직 (6.9)            | 행정/관리직 (5.6)         | 행정/관리직 (3.8)         |
| 7  | 서비스직 (14.2)          | 서비스직 (7.9)           | 서비스직 (7.1)           |
|    |                      | *실업자 (4.3)           |                      |
|    |                      | 비경제활동인구 (0.6)        |                      |

농/축/임업을 제외하고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이혼비율이 훨씬 높다. 직업을 가진 여성의 경우 독립된 수입이 있으므로 결혼에 문제가 있을때 직업이 없는 여성보다 이혼을 실행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직업적 지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가 불규칙하게 이혼비율이 분포되어 있어 일반적 경향을 찾기가 어려우나 서비스직만은 세시기에 모두 다른 직업군에 비해 현저히 이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직의 여성들이 이혼을 더 많이 한다고 보기보다는 여성들의 경우 이혼후 생계를 위하여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Peterson(1989)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의 경우 이혼후 생활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이혼후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하더라도 직업적 지위가 높은 직업에 취업하기 보다는 직업적 지위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4. 연령별 이혼상태

연령별 이혼상태(표 5)를 보면 1980년, 1990년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혼상태율이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5~44세 집단에서 최고의 이혼상태율을 보이고 그 다음은 45~54세 집단이다.

이와같이 연령집단별로 이혼상태율이 달라지므로 교육수준과 직업의 순수한 효과를 보기 위하여 연령으로 통제한 후 교육수준별, 직업별 이혼상태율을

표 5. 연령별 이혼상태율(%)

| 연령    | 성별 | 1980년 |      | 1990년 |      |
|-------|----|-------|------|-------|------|
|       |    | 남     | 여    | 남     | 여    |
| 15-24 |    | 0.56  | 0.22 | 0.46  | 0.16 |
| 25-34 |    | 0.50  | 0.94 | 0.83  | 0.91 |
| 35-44 |    | 0.86  | 1.64 | 1.70  | 2.12 |
| 45-54 |    | 0.73  | 1.15 | 1.54  | 1.61 |
| 55-64 |    | 0.38  | 0.48 | 0.72  | 0.84 |
| 65-74 |    | 0.24  | 0.18 | 0.27  | 0.33 |
| 75세이상 |    | 0.04  | 0.08 | 0.10  | 0.15 |

살펴보고자 한다.

5. 연령집단별로 본 교육수준별 이혼상태

표 6에서 보면 남성의 경우 1980년, 1990년 모두 세 연령집단에서(25~34, 35~44, 45~54)모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혼상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55~64세 집단의 경우도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은 이혼상태율을 보이다가 1980년에는 대졸 이상 집단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이혼상태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혼건수가 10으로 이혼상태율이 신뢰할만한 수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55~64세 집단의 1990년의 경우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경향이 낮아지는 일반적 경향과 일치하는데 국졸의 경우만 경향에서 벗어나 약간 낮은 이혼상태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혼상태율이 낮아지는 경향은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연령으로 통제했을때 45~54, 55~64

표 6. 연령집단별\*로 본 교육수준별 이혼상태율(%)  
(1980년)

| 성 별 |    |     | 남     |       |       |       | 여     |       |       |       |
|-----|----|-----|-------|-------|-------|-------|-------|-------|-------|-------|
| 교육  | 연령 |     | 25-34 | 35-44 | 45-54 | 55-64 | 25-34 | 35-44 | 45-54 | 55-64 |
| 불   | 취  | 학   | 2.38  | 2.33  | 1.63  | 0.37  | 1.65  | 1.61  | 0.75  | 0.40  |
| 국   |    | 졸   | 0.75  | 0.95  | 0.68  | 0.29  | 0.82  | 1.27  | 1.10  | 0.64  |
| 중   |    | 졸   | 0.53  | 0.92  | 0.52  | 0.25  | 0.84  | 2.02  | 1.50  | 0.68  |
| 고   |    | 졸   | 0.42  | 0.61  | 0.37  | 0.24  | 1.15  | 2.40  | 2.44  | 1.03  |
| 대   | 졸  | 이 상 | 0.21  | 0.52  | 0.40  | 0.75  | 0.88  | 1.29  | 2.76  | .     |
| 국   |    | 퇴   | 3.07  | 2.37  | 0.97  | 1.07  | 1.38  | 1.70  | 1.75  | 0.68  |
| 중   |    | 퇴   | 0.46  | 1.19  | 0.65  | 1.24  | 1.80  | 3.91  | 3.33  | .     |
| 고   |    | 퇴   | 0.34  | 0.83  | 2.37  | .     | 1.72  | 7.21  | 5.17  | .     |
| 대   |    | 퇴   | 0.90  | 1.05  | 1.28  | 0.90  | 3.14  | 4.00  | 2.06  | .     |

(1990년)

| 성 별 |    |     | 남     |       |       |       | 여     |       |       |       |
|-----|----|-----|-------|-------|-------|-------|-------|-------|-------|-------|
| 교육  | 연령 |     | 25-34 | 35-44 | 45-54 | 55-64 | 25-34 | 35-44 | 45-54 | 55-64 |
| 불   | 취  | 학   | 4.59  | 7.34  | 4.06  | 1.41  | 2.09  | 1.48  | 0.93  | 0.62  |
| 국   |    | 졸   | 2.90  | 3.41  | 1.76  | 0.50  | 1.50  | 1.77  | 1.25  | 0.73  |
| 중   |    | 졸   | 1.42  | 2.12  | 1.56  | 0.65  | 1.05  | 2.15  | 2.15  | 0.85  |
| 고   |    | 졸   | 0.67  | 1.25  | 1.25  | 0.58  | 0.82  | 2.36  | 2.10  | 1.71  |
| 대   | 졸  | 이 상 | 0.31  | 0.70  | 1.30  | 0.55  | 0.44  | 1.53  | 2.49  | 2.06  |
| 국   |    | 퇴   | 8.16  | 8.40  | 4.63  | 2.09  | 4.26  | 2.98  | 1.68  | 1.26  |
| 중   |    | 퇴   | 4.61  | 2.97  | 2.87  | 0.74  | 1.72  | 4.63  | 3.59  | 8.55  |
| 고   |    | 퇴   | 2.77  | 3.69  | 1.44  | 3.43  | 2.73  | 8.60  | 6.59  | 3.45  |
| 대   |    | 퇴   | 0.57  | 1.96  | 1.48  | 1.25  | 0.58  | 1.99  | 3.81  | 3.33  |

\*연령집단 중 24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사례수가 적어 이혼상태율의 수치가 신뢰성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세 집단에서는 1980년, 1990년 모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혼상태율이 높아지고 있다. 35~44세 집단에서는 1980년, 1990년 모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혼상태율이 높아지다가 대졸이상에서 다시 낮아지고 있다. 25~34세 집단에서는 1980년의 경우 특별한 경향없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1990년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혼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보아 대체적으로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혼상태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나 1990년의 25~34세 집단에서는 이 경향이 뒤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90년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연령층의 여성들은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이혼상태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남녀의 전통적 역할을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더 많거나 이혼후에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겠으나 1990년을 기준으로 25~34세의 젊은 여성들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상태율이 낮아지는 것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교육을 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여성들도 이제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자원이 많아 이혼도 적게하고 또 이혼 후 재혼의 가능성도 더 크기 때문인지 지금으로써는 확인하기 어렵다. 앞으로의 세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이혼상태율을 살펴본 후에야 알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35~44세 집단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혼상태율이 높아지다가 대졸이상에서

다시 낮아지는 이유는 아직도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중퇴자들의 사례수가 많지 않아 연령으로 통제된 후 교육수준별 이혼상태율을 비교했을 때 중퇴자들의 이혼상태율이 불규칙하게 나타난 경우들도 있으나 대체로 졸업자들 보다 중퇴자들이 이혼상태율이 높다는 일반적 경향에는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별 변함이 없다.

6. 연령집단별로 본 직업별 이혼상태율

표 7은 연령으로 통제한 후 직업별로 이혼상태율을 비교한 표이다.

남성의 경우 1980, 1990 두 시기에 모두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세 집단 모두에서(25~34, 35~44, 45~54)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이 이혼상태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판매직, 서비스직, 농/축/임, 생산/운수/단순노무직의 직업이 높은 이혼상태율을 보이는 경향에는 변함이 없다. 여성의 경우도

1980, 1990년 두 시기에 모두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세 연령집단 모두에서(25~34, 35~44, 45~54)농/축/임이 낮은 이혼상태율을 보이고 서비스직이 높은 이혼상태율을 보이는 경향에는 변함이 없다. 단지, 1980년에는 45~54세 집단에서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이 서비스직과 같이 높은 이혼상태율을 보였고, 1990년에는 35~44세 집단에서 행정관리직이 서비스직과 같이 높은 이혼상태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 세 경우 모두 이혼건수가 10이하로서 이러한 수치로 계산된 이혼상태율은 크게 신뢰할 만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일반적 경향에서 예외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이혼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혼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회경제적

표 7. 연령집단별\*로 본 직업별 이혼상태율(%)  
<1980년>

| 성 별            | 연령 | 남     |       |       | 여     |       |       |
|----------------|----|-------|-------|-------|-------|-------|-------|
|                |    | 25-34 | 35-44 | 45-54 | 25-34 | 35-44 | 45-54 |
| 직업             | 연령 |       |       |       |       |       |       |
| 전문/기술직         |    | 0.22  | 0.39  | 0.28  | 1.14  | 2.90  | 5.95  |
| 행정/관리직         |    | 0.36  | 0.28  | 0.13  | .     | 3.85  | 5.26  |
| 사무직            |    | 0.25  | 0.38  | 0.17  | 4.76  | 5.24  | 3.70  |
| 판매직            |    | 0.42  | 0.77  | 0.66  | 2.44  | 3.28  | 2.44  |
| 서비스직           |    | 0.51  | 0.89  | 0.73  | 8.72  | 10.19 | 5.40  |
| 농/축/임업/수산업/수렵업 |    | 0.92  | 0.91  | 0.63  | 0.37  | 0.44  | 0.34  |
| 생산/운수/단순노무직    |    | 0.41  | 0.80  | 0.80  | 2.21  | 3.60  | 3.29  |

<1990년>

| 성 별            | 연령 | 남     |       |       | 여     |       |       |
|----------------|----|-------|-------|-------|-------|-------|-------|
|                |    | 25-34 | 35-44 | 45-54 | 25-34 | 35-44 | 45-54 |
| 직업             | 연령 |       |       |       |       |       |       |
| 전문/기술직         |    | 0.31  | 0.65  | 0.79  | 0.87  | 3.26  | 4.42  |
| 행정/관리직         |    | 0.27  | 0.63  | 0.68  | 2.13  | 9.09  | 1.85  |
| 사무직            |    | 0.35  | 0.66  | 0.80  | 1.97  | 3.56  | 2.13  |
| 판매직            |    | 0.57  | 1.17  | 1.06  | 1.67  | 3.52  | 2.57  |
| 서비스직           |    | 1.06  | 1.43  | 1.40  | 7.61  | 8.83  | 6.69  |
| 농/축/임업/수산업/수렵업 |    | 1.79  | 1.84  | 1.27  | 0.34  | 0.33  | 0.16  |
| 생산/운수/단순노무직    |    | 0.83  | 2.11  | 1.27  | 2.46  | 3.38  | 2.44  |

\*15~24세 집단과 55세 이상의 집단은 이혼건수가 너무 적어 이혼상태율이 신뢰할 만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는 교육과 직업이 사용되었다.

남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상태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이 경향에는 별 변함이 없다. 여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점 이혼상태의 비율이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는 곡선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연령으로 통제했을 때 45~54, 55~64세 집단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혼상태율이 높아지나 35~44세 집단에서는 같은 경향을 보이다가 대졸이상에서 다시 낮아진다. 그러나 1990년의 25~34세 집단의 경우 이 경향이 뒤바뀌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혼상태율이 낮아진다. 남녀모두 중퇴자들이 졸업자들보다 높은 이혼비율을 보였다.

남성들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이나 직업적지위도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원이 많을수록 이혼도 적게 하고 재혼의 가능성도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의 경우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더 많거나 혹은 이혼후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더 많기 때문에 이혼비율이 높아진다고 추측할 수 있으나 어떤 연령집단에서는 교육수준이 더 높아지면 왜 이혼비율이 다시 낮아지는지는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또한, 1990년의 젊은 여성들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혼상태율이 낮아지는 이유도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중퇴자들이 졸업자들보다 높은 이혼비율을 보인 것은 중퇴자들이 졸업자들과 사회적 배경과 심리적 경향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들이 학교를 중퇴하게 하고, 이혼하게 하는지 앞으로의 연구에서 밝혀보아야 할 과제이다.

직업별 이혼상태율을 비교하면 남성들의 경우 직업군의 지위가 높을수록 이혼상태율이 낮아진다. 연령으로 통제한 후에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 자료가 횡단적 자료이므로 직업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혼을 덜 한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직업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직업적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이혼후 재혼을 더 쉽게 하기 때문에 이혼상태의 비율이 낮아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경우 직업적 지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가 불규칙하게 이혼비율이 분포되어 있어 일반적 경향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가장 낮은 이혼율을 보인 직업과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인 직업은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연령으로 통제한 후에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농/축/임업/수산업/수렵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혼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의 생활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치관을 가졌거나 또는 이혼한 후 생활기반을 떠나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여성들로 추측된다. 서비스직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현저하게 이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직의 여성들이 이혼하는 경향이 더 높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여성들의 경우 이혼한 후 생계유지를 위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교육과 이혼상태율, 직업과 이혼상태율과의 관계가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연령의 영향외에 교육과 직업이 이혼경향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미국의 이혼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횡단적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혼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며 이혼상태에 재혼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 정확하게 이혼율을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극복된 자료의 개발이 요청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점 때문에 각 변수와 이혼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연령변수 하나로만 통제를 했으나 각 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을 보기 위해 여러변수를 통제하면서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연구에 사용될 때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잘 밝혀내는 발전된 연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경제기획원(1973). 1970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제 2권 10% 표본조사 4-1 경제활동. 경제기획원.
- 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80-1985). 인구동태 신고현황.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3)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82).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보고 제2권 15% 표본조사 3-1 경제활동. 경

- 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89-1990). 인구동태 통계연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5) 김정옥·박경규(1993). 이혼의 사회적 배경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1(4), 83-94.
  - 6) 김혜선(1982). 현대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한·일 간의 이혼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1), 91-110.
  - 7) 박찬미·서병숙(1987).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45-162.
  - 8) 이광규(1981). 한국가족의 사적연구. 일지사.
  - 9) 이태영(1987). 한국의 이혼율 연구II. 서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 10) 정민자(1987). 현대가족의 해체 현상에 관한 일 고찰-이혼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연구논문집* 18(1), 91-103.
  - 11) 통계청(1992). 1990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제6권 경제활동. 통계청.
  - 12) 통계청(1991-1994). 인구동태 통계연보. 통계청.
  - 13) 한경혜(1993). 이혼여성의 문제와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11(4), 127-150.
  - 14) Becker, G.S.(1973). A theory of marriage :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813-847.
  - 15) Bernard, J.(1966). Marital stability and patterns of status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8, 421-441.
  - 16) Carter, H. & Glick, P.C.(1976). Marriage and divorce : A social and economic study. Harvard University Press.
  - 17) Chan, L.Y.W. & Heaton, T.B.(1989). Demographic determinants of delayed divorce. *Journal of Divorce* 13, 97-112.
  - 18) Cherlin, A.(1979). Work life and marital dissolution. In G.Levinger & O.C.Moles(Eds.). Divorce and separation : Context, causes and consequences. New York : Basic Books, Inc., Publishers.
  - 19) Dublin, L.(1965). Factbook on man, 2nd ed. New York : Macmillan.
  - 20) Duncan, O.D., Featherman, D.L. & Duncan, B.(1972).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achievement. New York : Seminar.
  - 21) Goode, W.J.(1956). After divorce. Glencoe, Illinois : The Free Press.
  - 22) Goode, W.J.(1966). Family disorganization. In R.K. Merton & R.A.Nisbet(Eds.).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New York : Harcourt, Brace and World.
  - 23) Greestein, T.N.(1990). Marital disruption and the employment of marrie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57-676.
  - 24) Hannan, M.T. & Tuma, N.B.(1977). Income and marital events : Evidence from an income maintenance experi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 1186-1211.
  - 25) Houseknecht, S. & Spanier, G.(1980). Marital disruption and higher education among women in the United Stat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21, 375-389.
  - 26) Kephart, W.M.(1952). Desertion and divorce in Philadelphi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7, 710-727.
  - 27) Martin, T.C. & Bumpass, L.L.(1989). Recent trends in marital disruption. *Demography* 26, 37-51.
  - 28) Moles, O.C.(1976). Marital dissolution and assistance payments : Variations among American States.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32, 87-102.
  - 29) Morgan, S.P. & Rindfuss, R.R.(1985). Marital disruption : structural and temporal dimens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1055-1076.
  - 30) Norton, A.J. & Glick, P.C.(1979). Marital instability in America : Past, present and future. In G.Levinger & O.C.Moles(Eds.), Divorce and separation : context, causes, and consequences. New York : Basic Books, Inc., Publishers.
  - 31) Peterson, R.R.(1989). Women, work and divorce.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32) Rosow, I. & Rose, K.D.(1972). Divorce among do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587-598.
  - 33) Ross, H.L. & Sawhill, I.V.(1975). Time of transition. Washington, D.C. : Urban Institute.
  - 34) Udry, J.R.(1966). Marital instability by race, sex, education and occupation using 1960 census dat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2, 203-209.